

김관영 도정 ‘인사 파탄’ 반복...“시스템 허점” 道 추석 민생대책 ‘작년판 재탕’ 말바뀌 돌려막기 빈축

서울장학숙 관장 전과 논란 상징적 임기내내도요직부실 인사되풀이 상식밖 인사 처리도정 신뢰 바닥 ‘정실 인사 공정성·투명성 훼손

〈1〉 지난 2022년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도지사와 재선급 국회의원 등 막강한 후보들을 누르고 도백에 오른 김관영 전북도지사.

그러나 지난 3년 김관영 도정은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사 시스템 부재를 비롯해 각종 국제행사 졸속 운영, 전 주 완주 통합 블랙홀 등 각종 난맥상을 드러내며 기대 이하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는 여전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김관영 도정 3년의 현주소와 문제점, 인사 난맥상 등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최근 서울 전북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이 임명됐다가 낙마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전북도는 유독 민선 8기 임기 초부터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대 정부수석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는가하면 야심차게 외부영입한 기업유치 고위임원은 갑질과 지역정서에 맞지않는 언행을 일삼다 사퇴했다.

도 대변인실은 더 가관이다. 전직 대변인들이 잇따라 갑질문제를 물려났는데 이중 일부는 다시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했고,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고 나간 팀장급 직원도 역시 산하기관

으로 영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금도 도 중추부서 간부의 갑질행태가 도마위에 올라 조만간 터질 것이라는 북도통신이 도정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시민단체와 도의회는 지난 3년 간 수차례 성명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전북도의 인사 난맥상과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해외 파견자 선발과정에서의 잇따른 논란을 비롯해 익산 부시장 시절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간부를 도청요직에 발탁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인

사가 이어지고 있다. 1년 반 전에는 이같은 각종 논란이 연거푸 불거지자 도정을 쇄신하겠다고 당시 비서실장을 교체했는데 전북도 서울중앙협력본부장으로 보내며 책임 떠넘기기, 꼬리자르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는 와중에 서울 장학숙 관장의 전과 5범 논란이 기름을 끼어 부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사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서울장학숙 관장 인사에서 음주운전 3회를 포함한 전과5범 인물을 임명하여 논란을 일으키면서 부실한 인사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 주고 말았다”며 “더욱 큰 문제는 전북도의 인사 파문이 한두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고 비판했다.

또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행정 인사가 계속해서 도덕성과 공정성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서울장학숙 인사 파문은 인사 실패의 상징적인 사례로 도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의 정실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올림픽 유치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전북자치도가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에 참가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주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

“국토부·전북도 새만금신공항 항소, 생명 무시 폭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생명 “전북도·정치권, 개발 논리 편승”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가 기여코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새만금신공항의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국민의 생명과 땀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

로 국민의 생명과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어찌 이런 극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구나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 쟁위기에 속해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

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전북도당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법원이 새만금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사건이나 국토교통부는 판결을 경계하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하며, 또다시 도민의 뜻과 법적 판단을 외면했다”며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국토교통부만의 몫이 아니고 전북도청은 정부의 일방적 개발 논리에 침묵하거나 동조해 왔고 도민 삶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

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청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진 논리에 편승해 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북 정치권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북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부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왔는데 법원의 판결은 새만금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전북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전북발전과 미래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적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물가책임관 재활용·정부 정책 재포장 서민 체감 시책 사실상 제자리

전북도가 23일 2025 추석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추석 대책을 가져다 ‘말만 바뀌 리바이벌’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이날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기 넘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발달 감감, 도민 안전대응에 역점을 둔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실국장을 지역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피력했는데 사실상 지난해와 다름바가 없다.

지난해 추석대책은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으로 시작하며 4개 분야 14개 과제로 판박이다. 특히 실국장 물가책임관도 그대로 베껴와 2025년 대책이라고 내놓는 등 사실상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최대 20%로 확대나 특례보증, 민생지원 방안,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재난 교통 대책 등도 상당수가 유사하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추석 명절 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다(최대 150만원) 및 할인율(최대 20%)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개편(1인가구 60만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지급) △상생페이백(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 소비 증가분 20% 환

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지만 이는 전북도의 대책이 아니라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부시책의 일환이다. 이를 추석 대책이라는 포장에 내놓은 것.

또 명절 기간 도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두루 살피고,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시책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정 2,94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59개소에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결식우려 독거노인 2,400여명에 게 떡, 전 등 명절음식을 배달할 계획이다. 장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보미 파견 활동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 노숙인, 결식아동,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생보도자금 특례보증(4,312억),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450억), △정책자금 연계특례보증(300억) 등을 통해 경영여력을 적극 해소하고, 명절 전 약 2주간 특례보증 지원 신청자의 표준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 예년과 일부 금액만 상이할 뿐 실제 서민, 도민들에게 와닿는 새로운 시책은 아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장은 “명절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행안부 방침을 참조하고 있다”며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을 가구당에서 명 당으로 바꾸는 등 일부 바꾼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의원〉 “인터넷선거제도 정정·반론 1% 불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6번의 선거에서 접수된 610건

의 이의신청 중 정정보도·반론보도 결정은 8건(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접수 451건 중 단 한 건도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 중 177건(68.9%)이 기각됐다. 심의 기준의 불명확과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 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인터넷 보도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제재 강화와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기업에게 사랑을
도민에게 행복을!

Since 1935. 9. 30
창립 제90주년

전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90년의 발자취,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

전주상공회의소

진안군, 농식품부 ‘저탄소에너지 공동시설’ 지원 선정

국비22억 확보 지열 기반 시설 구축
마령면 스마트팜 핵심 기반 역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유도
공모 선정으로 조기 착공 전망

전북특별자치도는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에 지열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31억4천만 원에 이른다. 이 중 70%인 22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열 천공, 열교환기 등 기반 시설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은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공동 구축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의 해당 사업은 부지 6.9ha, 온실면적 4.5ha 규모로, 2028년까지 총 486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시설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와 진안군은 7월 공모 신청 이후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농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선정에 힘을 쏟았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진안군의 임대형 스마



도는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전북도>

트팜이 우리도는 물론 전국 제일의 스타트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마트농업 일변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정철 기자

전북도, 국회입법박람회 참가…도 우수 정책 홍보

‘지방소멸 대응’ 핵심 주제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소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에 참가, 전북이 가는 길,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전북도의 우수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 입법 및 정책을 홍보·논의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입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핵심 주

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전략 등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전환의 상징으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첨단기술 기반의 생산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활동도 전북도의 전략 중 하나로 소개됐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계 속 전북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에 참가해 도의 우수정책을 홍보한다. <사진=전북도>

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2025 국회입법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

성화’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입법·정책 제안대회, 국민참여 강연,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정책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정철 기자

완주산단 수소전문기업 (주)아헤스 인도 수출 본격화

1MW급 수전해 설비 공급 계약
인도 현지 공장 1만5천평 착공
도 “지역기업 해외 진출 모범 사례”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 테크노밸리 2산단 소재 수소전문기업 (주)아헤스(대표 이종희)가 인도 신재생에너지업체 GH2 Solar Ltd.와 수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아헤스는 지난 8월 GH2 Solar와 1MW급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20억 원이며, 2025년 10월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3월 양사 간 협약 이후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수출은 GH2 Solar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배경이다. 이 회사는 2024

년 8월 인도 태양광 에너지공사(SECI)로부터 525MW 규모 입찰을 따냈다. 이에 따라 (주)아헤스는 앞으로 5년간 연 105M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지속 공급하게 된다. (주)아헤스는 8월 말 GH2 Solar와의 합작으로 인도 현지에 약 1만 5,000평 규모의 수전해 설비 공장 착공에도 나섰다. 도는 이번 성과를 지역 수소기업의 해외 진출 모범 사례로 보고, 도내 인프라와 연계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아헤스는 국내 최초로 7MW급 대용량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캐프 배지 기업, 중기부 팀덱 TIPS 기업과 산업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 대정부 건의

글로벌배터리경쟁서우위선점위해
세액공제·생산보조금도입 등 촉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제출한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전기차 수요 둔화, EU 등 기술패권 경쟁 기부 팀덱 TIPS 기업과 산업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문승우 의장

문 의장은 이날 “이차전지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법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생산보조금 도입 등 국가 주도의 지원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월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10여 개, 관련 도·시·군·자치단체와 이차전지산업 육성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정철 기자

“한미동맹 뒤 ‘갈취 외교’ 국민경제 위기”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논평
미국 470조원 투자 요구 규탄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투자 요구와 관세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어온 동맹이지만 일방적인 굴종과 불평등을 전제로 한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측이며, 국가적 모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동맹이라 부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한 국내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상용차와 수의 배분에서 미국이 우선권을 독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이는 표면상 ‘투자’일 뿐, 실상은 ‘노골적인 갈취’이며 ‘투자’의 탈을 쓴 기만적 사기극’에 불과하고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제협력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전례가 없는 규모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총액을 넘어선다. 현재까지 미국 누적 투자 금액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미국의 반주권적 요구에 있고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미국에 대한 관세 부담이 폭증하고, 전문직 비자 수수료까지 인상되며 인력의 이동마저 가로막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명백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직원 스마트폰 보도사진 실습 교육

전북개발공사는 23일 공사 1층 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찍는 보도사진 A to Z’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언론홍보 사진 촬영에 느끼는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쉽게 효과적인 보도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경석 전북사진기자협회 간사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및 촬영법 △상황별 촬영 기법 △ 공공기관 보도자료 사진 우수 사례 분석 △모의 촬영실습 등이 진행됐다.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한 실습 시간



전북개발공사는 2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교육을 진행했다.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전문가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촬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보도자료 사진의 품질은 기관의 신뢰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하수 코로나19 최고치’ 명절 방역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최근 도내 하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3일 연구원에 따르면 8월 4주차 하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628.3 copies/mL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9월 1주차에도 604.5 copies/mL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률도 41.7%에서 53.7%로 상승해 하수 분석 결과와 실제 확진자 추세가 나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군산·익산·

임실 공공하수처리장 4곳의 하수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며 2023년부터 감염병 유행 감시를 이어오고 있다. 하수 분석은 확진자 통계보다 앞서 지역사회 내 바이러스 확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 역시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밀폐된 실내·다중 행사 참여 자제 ▲손 씻기 ▲가침 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장정철 기자

비 오는 날 더욱 운전엔 주의하세요!



감속 주행



전조등 켜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옆 차선 차량 거리 유지

(주)알에프세미, 경영 투명성 강화 토대 마련

임시주주총회 원안 가결 당기순이익 20억원 기록 안정적 흑자 기조 이어가

(주)알에프세미(대표이사 반재용)는 경영 투명성 강화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영 투명성 강화는 2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상정된 모든 안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이룬 결과이다.

참고로 이번 임시주총은 전자투표 등 전자적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주주 참여를 확대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 결과에서 코스닥협회 추천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김영록, 감사 서동민 인간이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는 전자적 방법 활용으로 출석 요건이 충족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1999년 설립된 반도체 소자 및 LED 전문 기업 알에프세미는 ECM 칩과 TVS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을 주력 사업으로 이루고 있다.

특히 (주)알에프세미는 올해 상반기 매출 122억원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 19억원, 당기순이익 20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신입 사외이사과 감사로 선임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내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주와의 소통 및 투명경영 체제를 견고히 이어갈 전망이다.

반재용 대표이사는 “상반기 흑자 달성과 임시주총 원안 가결은 경영 체질



(주)알에프세미는 경영 투명성 강화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영 투명성 강화는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모든 안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며 이룬 결과이다.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 창출과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도민 위해 2천만원 기부

건설업계 회원 자발적 모금 취약계층 명절 지원에 사용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지역민 위한 ‘온정의 손길’을 흔들고 있다.

23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북도청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해 전북도민 나눔 위한 2천만원을 전달했다.

소 회장이 전달한 성금 2천만원은 건설업계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의 모금운동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에 용기를 잃은 지역민들의 행복을 작게나마 찾아 주기 위해서다.

성금을 전달한 소재철 회장은 “지역사

회 희망과 행복의 온기를 채우는데 지역 건설업계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나눔을 통한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회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한 성금을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23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북도청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해 전북도민 나눔 위한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협회 기부 누적액은 총 5억 2500만원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

3분기 FGI협의체 개최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3일 전주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2025년 3분기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협의체를 열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FGI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일환이다.

협의체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3분기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위기징후 모니터링 결과 ‘주요’ 단계로 분류된 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표와 전주지식산업센터장, 위기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입주기업 현황과 경영상 어려움 △산업 현안 및 건의사항 △정부 지원사업 안내 △위기대응 정책 제언 등이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확보 어려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경영 압박 요인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술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환 단장은 “이번 FGI협의체는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라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기 대응뿐 아니라

성장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부터 전북테크노파크에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분기별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이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회복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저메탄 사료 개발 현황 등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4일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국내 사료산업 발전과 저메탄 사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사료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국내 배합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관련 업체 연구개발(R&D) 담당자 및 연구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사료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저메탄 사료 개발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홍승탁 사무관은 ‘국내 사료산업 정책 현황’, 제일사료 이주환 박사는 ‘국내 사료산업 현황 및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 차례로 발표했다.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강한구 연구관이 ‘저메탄 사료 소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종합 토론 시간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 발전 위한 현장 수요 정책과 연

구 방향 등이 모색됐다.

더불어 국립축산과학원 메탄저감제 개발 현황 공유로 산업과 조기 실현 의견 등이 오갔다.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량은 2020년 2132만 톤에서 2024년 2407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국제 곡물가 변동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2020년 kg당 479원에서 2024년 622원까지 상승해 축산농가에는 부담이다.

정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 사료 30%를 저메탄 사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국내 사료산업 현안을 해결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호남통계청, 통계분석 경진대회 결과 발표

데이터 활용 다양한 가능성 확인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정구현)은 ‘2025년 호남권 통계분석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다양한 분야 통계 이용자 총 14개 팀이 4월~7월까지 약 4개월간 분석한 통계분석 결과 등이 제출됐다.

제출된 보고서에는 통계데이터센터(SDC) 제공자료,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분석해 데이터 정책적 활용과 다양한 분석가능성 내용들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외부이용자 수상작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건강 MBTI 개발과 맞춤형 관리 전략 제시(전남대학교, 윤승아·조용석·최희석)’가 최우수상, ‘해양사고와 산업재해의 정책 대응 비대칭성 분석(전북대학교, 송하은)’이 우수

상을 수상했다.

내부참여자 수상작으로는 ‘랜덤포레스트를 통한 장수군 산물예방 CCTV 설치 구역 예측(전주사무소, 송지현·최웅렬)’이 최우수, ‘광주광역시 폭염 분석(군집분석을 중심으로)(목포사무소, 정유희·남유림·이예진)’이 우수로 선정됐다.

이외 ‘MZ세대 맞춤형 담례품을 위한 시범 지역 선정 마인 리워드+(남원사무소, 김수경·안솔빈)’, ‘성심당의 인지도 상승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순천사무소, 오정하·위현서·장하림)’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분석 경진대회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수상팀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호남지방통계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확산과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기업사랑도민회, 정보제공 역량강화

AI 시대 대응전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는 “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슬로건과 함께 AI 시대에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사랑 도민회는 올해 창립 2주년을 맞으며 그동안 회원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

올해 남은 하반기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어갈 방침이다.

먼저 컨설팅 범위를 확대해 AI시대의 대응전략 등 회원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전략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업사랑리더스 포럼을 적극 추진해 회원들과 함께 활용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시의에 맞는 강의와 주제를 선정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상담하는 컨설팅 위주의 포럼을 운영한다.

경영애로해소를 위한 세무 노무 법무 등 전문화된 컨설팅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가 풀을 확대해 상시 상담체제도 갖춰 나갈 계획이다.

회원기업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는 회원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창구로 일원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윤방섭 회장은 “2천년대 들어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어려운 기업환경을 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성장보다는 생존을 걱정할 만큼 어려운 시기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과 단합해 이겨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농관원,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우려가 있다.

/김영태 기자

이에 따라 농관원 전북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4월~6월에는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에는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욱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전개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오는 11월까지 전북테크노파크 6개 입주기관을 순회하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달제도 및 나라장터 활용 경험이 부족한 지역 기업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제품·벤처나·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각 시설별로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조달청 전담 컨설턴트가 직접 참여해 △조달제도 설명 △기업 맞춤형 1:1 상담 △제도별

안내자료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펼친다.

사후에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필요시 심화 컨설팅이나 수요기관 연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조달 참여 경험이 부족해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전주시에 도서 200여권 기부

‘책프라이즈 1호!’ 도서 전달

전북은행은 23일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이 도서 200여 권(3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과 함께 책프라이즈 1호!’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전북은행은 청년층을 위한 추천 도서와 노인들을 위한 큰글자도서 등 세대별 맞춤형 도서를 준비해 전달했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독서취약계층과 시민들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북은행의 ‘책프라이즈 1호’ 도서 기부에 이어 자발적인 도서 기부를 약속한 기업들과 2호·3호 릴레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이번 도서 기부가 청년과 시니어 세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산이 돼 책을 통한 소통과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정읍시, 전 세대 참여형 축제 ‘책축제 달빛소풍’ 26~27일 열려

정읍시가 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 참여형 축제 ‘제6회 책축제 달빛소풍’을 오는 26일과 27일 정읍시립중앙도서관과 독서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일기 예보 오늘 읽음, 내일 맑음’을 슬로건으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연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아카펠라팀 ‘오직목소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독서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기념식으로 이어진다.

행사에서는 유공시민 표창, 책임은 가족과 책임기 마라톤 우수자 시상, 시민작가 동화창작반·에세이반의 출간기념식이 진행된다. 26일에는 방송인 출신 고명한 작가가 ‘AI시대, 해답은 고전에 있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이보현 작가가 초보자를 위한 독림출판 세계를 소개한다. 27일에는 2021년 BIB 황금사과상 수상자인 이명애 그림책 작가가 ‘작은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책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창작 과정을 들려준다.

시는 이번 책축제가 시민 모두가 책과 도서관을 더 가까이하는 계기가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 마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10월 13일~25일 광견병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가 광견병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지역내 동물병원 15개소에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이승현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1년에 한 번 꼭 접종해야 한다”라며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반려견 에티켓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 평가회 열려

23일 익산에서 신품종 고구마 ‘호풍미’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평가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회장 박래운)는 삼기면과 황등면 등에서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범포장 운영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고구마 신품종 ‘호풍미’의 생육상태와 수량성을 확인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품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농업인들은 시범포 운영 전반에도 만족감을 보였다. 호풍미는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2025년 기준 점유율 8.5%를 기록하고 있다.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수량 안정성이 높고, 10a당 3,399kg의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또한 당글쫄깃병, 더멧이병, 뿌리혹선충 등에 강해 경쟁력을 갖췄다

박래운 회장은 “우수한 신품종이 지역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시범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품종으로 시범포를 확대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농업인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I.B.T.F. in 새만금’ 성공 개최 위해 맞손

새만금개발청·전북도 군산대 등 기업홍보 행정지원 업무협약

군산시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 국립군산대, 군장대, 기전대, 전북테크노파크 및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기업홍보 및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10월 24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차전지 국제 콘퍼런스로서 ‘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이다.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현재와 미래기술에 대한 정보공유, 글로벌 기업·기관간 협력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 우수 기업 등이 연사로 대거 참여해 총 18개 내외의 세션이 운영될 계획이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



정읍전 달하다리가 낮에는 벽화로, 밤에는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정읍시>

하며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했고, 현재는 이차전지 소재 중심에서 전(全)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이번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점과 각종 지원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추가적인 투자유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가 전

환경 모빌리티, 에너지 저장장치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기술 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는 글로벌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기업들이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및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활기찬 농촌학교 만들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기대

정읍시가 칠보면에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며 농촌유학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학부모들의 정주 여건 선호를 반영해 농촌유학 거주시설 정주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이용시설 1동과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가족체류형 주거단지를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 실시 설계, 도원가 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까지 완료해 9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농촌유학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농촌유학 희망 학생과 가족들이



거주시설 부족이나 불편으로 인해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사업이 농촌유학생 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활기찬 농촌학교 만들기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유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영예’

전북 유일 수상 지방자치 우수성 입증

익산시가 주민자치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전북 도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자치분권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선정함으로써 자치분권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는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시행 및 조례 제정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 △청년 취·창업 플랫폼 ‘청년시청’ 운영 △전북 최초 ‘나눔공간’ 복지 플랫폼 도

입 △주민이 직접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이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시의회,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열정을 모아 이룬 값진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제할 수 있는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 물가부담완화시장활성화

정읍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물가 부담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사는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에서 진행되며, 9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합산 금액 5만원 이상 9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9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된다.

환급은 연지시장 변영희 사무실과 신태인시장 상인회사무실 1층에서 가능하다.

또한 샘고을시장에서는 농림축산

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비 지원 환급 행사도 열린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장 방문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나서

맞춤형 교육 참가자 모집

익산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청년 이테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이테크’는 익산과 재테크를 결합해 만든 명칭으로, 익산 청년들이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 과정은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지식을 중심으로 △월급 관리 기초와 세금 이해 △금융 상품과 경제 시장의 흐름 △노후 준비와 연금 체계 등 3개 강좌로 구성됐다. 교육은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해

A·B·C반으로 나눠 반별 3회씩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익산청년시청에서 열린다.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반별 15명씩 총 4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누리집(youthforest.iksan.go.kr)에서 가능하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청년 이테크는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청년이 참여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 대응

군산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5년도 징수목표액 108억 원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꾸리면서 학생과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산시는 상반기에 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2,3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양류 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공매사이트(온비드)에서 9월 현재 2회차 공매가 진행돼 33점이 낙찰됐으며, 1,300만 원의 낙찰대금은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재산은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부동산과 차량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포차 포함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강제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익산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9월 18일까지 누적 단속 건수는 700건을 넘어섰으며, 일제단속은 9월 말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등이다. 익산시 청소지원과와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직접 쓰레기 봉투를 뜯어 증거물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는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이후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올바른 배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다면 머지않아 익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치유농업’ 퇴사자 사회 적응 도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5일부터 퇴직자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돕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회당 15명 규모로 총 15회에 걸쳐, 퇴직 이후 겪을 수 있는 우울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공기정화식물 심기 △반려식물 키우기 △계절 꽃 심기 등 식물 재배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는다. 또한 △협동화반 만

들기 △공기정화식물 기부 등 공동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감을 높이는 기회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퇴직 이후 삶의 변화를 겪는 시민들이 치유농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농협과 협력
최대 500만원 이차보전 3% 지원
지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 행과 함께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완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은행

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완주군이 2억원, 농협은행이 2억 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12.5배인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이자 3%를 3년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이번 완주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주지점(용진읍 운곡2로 3/전화 247-9551)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한지로드’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선정

**8천만원 지원 한지 유산 발굴
연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완주군이 지난 7월 대승한지마을과 함께 ‘완주한지로드를 찾아서’를 주제로 2026년 우리 고장 국가유산 생생 활용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1980년대 전국 최대 한지 생산지였던 송광마을을 중심으로 한지와 관련된 유·무형 유산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완주한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승한지마을이 소재한 소양면은 ▲국가사적 위봉산성, 용치전적지 ▲명승 위봉폭포 ▲보물 송광사(7건), 위봉사 등 완주군의 주요 국가유산이 집중된 지역이다.

송광사는 과거 송광마을 주민들에게 한지 제조 기술을 전수했으며, 위봉사에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한지 후불탱화가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대승한지마을이 사업을 주관하며 완주한지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대승한지마을은 최근 전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통 한지 사용 확대와 함께 한옥스테이를 활용한 스몰웨딩, 칠순잔치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지와 한옥정원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대한패브릭 서한집 대표 3년 연속 순창 고향사랑 기부

순창 출신 기업인 (주)대한패브릭 서한집 대표이사가 23일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올해로 3년째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서한집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한집 대표는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천마을 출신으로,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본사를 둔 (주)대한패브릭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주)대한패브릭은 2006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변화와 혁신을 통해 300여 종의 안감에 특화된 회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한집 대표는 “올해도 고향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까지 벌써 3년째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 실천해 주신 서한집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답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민공청회 순회 개최

**29~30일 동·서·중부권 지구별
'26~'35년 농촌기본계획 수립**

남원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은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2035년 남원시 농촌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하는 10년간의 계획으로서 ‘사람과 산업, 문화가 연결되는 상생농촌, 활력 넘치는 남원’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공청회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부·중부·서부 3개 지구별로 각각 개최되며,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을 포함하는 ▲중부권역은 9월 29일 월요일 14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을 포함하는 ▲서부권역은 9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금지누리센터에서 진행되며, 주천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이백면, 산동면

을 포함하는 ▲중부권역은 같은 날 14시 이백 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과 재생활성화지역별 발전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남원시 지역활력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2025 시민의장 수상자 6인 지정

**향토 명예 고취·지역발전 앞장
내달 흥부제에서 수여 예정**

남원시(최경식 시장)는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각 부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2025 남원시민의장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문화장 한중춘(83세) ▲체육장 유호근(58세) ▲효행장 최영희(80세) ▲봉사장 조용봉(65세) ▲산업노동장 안광섭(65세) ▲애향장 박노일(65세)씨 등이다.

문화장 한중춘씨는 남원향교 자문위원으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인성교육에 헌신하며 후학 양성과 도덕성 함양에 힘써왔다.

체육장 유호근씨는 남원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전통 스포츠 씨름 육성과 전국 대회 유치에 힘써 지역 체육과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였다.

효행장 최영희씨는 51년간 시부모 봉양하며 효행을 실천하였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효행

의 귀감이 되었다.

봉사장 조용봉씨는 새마을지도협의 회 활동을 통해 꾸준한 봉사와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였다.

산업노동장 안광섭씨는 ㈜재성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을 지역으로 이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용 창출을 선도하였다.

애향장 박노일씨는 지역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천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남원시민의 장은 남원시민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수상자들은 시상식에서 증서와 훈장, 어깨띠를 받고 지역사회의 귀빈으로서 예우를 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오는 10월 17일 제33회 흥부제 행사에서 남원시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19회 사회복지대회 성황 ‘화합의 장’

**사회복지 유공자 16명 표창
지역소외 이웃 위한 헌신 기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19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가 23일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 관계자와 기관·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대회는 완주풍류학교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내빈 소개와 함께 사회복지 유공자 16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전북시장장애인연합회 순창군지회, 옥천요양원,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읍·면 지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인물들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이날 표창을 통해 노고를 인정받았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19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가 23일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순창군>

행사는 사회복지 윤리선언 낭독과 기념촬영으로 이어졌으며, 엄영수 코미디언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점심 만찬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졌다.

최영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순창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따뜻한 복지환경의 핵심 목표로 삼고,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모두가 웃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문화장 한중춘



체육장 유호근



효행장 최영희

26일 와푸축제 개막…체험·먹거리로 물드는 완주 가을

**트라이스트림·물고기잡기 등 체험
13개 읍면 로컬밥상·장터 운영**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고산자연휴양림과 시장전을 중심으로 트라이스트림, 메뚜기잡기 체험, 맨손 물고기잡기, 섬패들보드, 워터볼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사생대회, 신바람 제조대회를 비롯해 농특산물 감작 경매, ‘완주 9품 달

인을 찾아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와푸뮤직파티 등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완주 13개 읍·면의 마을 셰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로컬밥상과 완주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장터도 운영된다.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함께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완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 제1회 호국영령 추모제

**경천면 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개최
전통제례·헌화·진혼무 진행**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김기범)가 23일 경천면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제1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추모제는 전통제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모사, 진혼무, 추모가 순으로 진행되며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김기범 회장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이번 추모제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제1회 호국영령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가 23일 경천면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제1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열었다. <사진=완주군>

추모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 가족들이 존경받으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국보훈의 도시 완주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호국영령 추모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비자 발급 지원금으로 외국인 장기정착 돕는다

완주군이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기반 비자 발급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기반 비자 전환 정책에 맞춰,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발급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속령기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1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발급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총 4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접수처는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과 완주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기반 비자 발급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부안 농업인 학습단체, 장학금 300만원 기탁

지난 22일, 부안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부안군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에서 부안군 지역인재를 키우는 장학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농촌지도자 부안군연합회(회장 정병만)와 한국생활개선회 부안군연합회(회장 정진옥)는 부안군농인재육성재단에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 참여한 한국농촌지도자부안군연합회는 지역 농업의 선진화·현대화에 앞장서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경영 역량 강화 교육, 농업인 권익 보호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또한 한국생활개선회부안군연합회는 농촌 여성의 생활 향상과 소득 증대, 이웃돕기 음식 나눔, 마을 환경정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진안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 취약계층에 쌀 10kg 45포 기탁

진안군 성수면은 지난 22일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10kg 45포(13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영근 이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수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직접 농사지은 쌀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탁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오영근 이장이 자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점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오영근 이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순석 성수면장은 “큰 피해를 입은 와중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오영근 이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전길희 기자

제일·성진 여객 김진태 회장, 임실군에 1천만원 기부

추석맞이온누리상품권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제일여객자동차 김진태 회장이 추석을 맞아 임실군 관내 취약계층에게 온누리상품권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이날 전달식에는 심민 임실군수, 김진태 제일여객 회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한규 사무처장, 대한적십

자사봉사회 임실군협의회 임점순 회장이 참석했다.

김진태 회장은 지난 2021년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해 전북 제4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5년 연속 명절마다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번 추석 기부금 1천만 원 외에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1천만 원을 기부해 올해 총 2천만 원을 후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SGC에너지(주), 군산시에 백미 10kg 총 200포 기탁

미성동·소룡동 방문

SGC에너지(주)(대표이사 박준영)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미성동행정복지센터는 SGC에너지가 군산시 미성동과 소룡동을 각각 방문해 백미 10kg 총 200포(각 100포)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SGC에너지(주)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탄탄한 중견

기업이다.

또한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이웃들에게 백미를 기탁하여 꾸준한 나눔을 이어왔다.

박준영 대표이사는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미성동과 소룡동 주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유)만성산업, 임실군에 장학금 5백만원 기탁

임실군의 교육 발전을 향한 따뜻한 나눔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만성산업(대표 전인식)이 지난 17일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들을 향한 변함 없는 사랑을 전했다.

(유)만성산업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장학금을 기부하며, 지금까지 총 1,5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장학금은 임실군 내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 여

건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탁식에 참석한 (유)만성산업 심준도 이사는 “고향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홍보대사 최재명 팬, 어린이 도서 600권 기탁

장수군은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현장에서 장수군 홍보대사이자 군 출신 가수로 활동 중인 최재명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 달성군에서 방문한 한 팬이 어린이 도서 600권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도서는 역사, 세계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전집류로, 팬은 “가수님의 첫 공식 행사를 기념하며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장수군의 아동과 취약계층

층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이번에 기탁받은 도서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가정 등에 고르게 배분해 아동들이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축제 현장을 찾은 방문객의 마음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뜻깊은 사례로 평가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 체험 실시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최근 관내 취약계층 아동 20명과 함께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찾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접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메타버스체험관에서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과학자, 게임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느끼고,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아동들은 메타버스체험관에서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과학자, 게임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세계를 체험했으며, 기존의 교과서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를 체감하고 스스로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으로 아동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새마을회, 취약계층 1800세대에 고추장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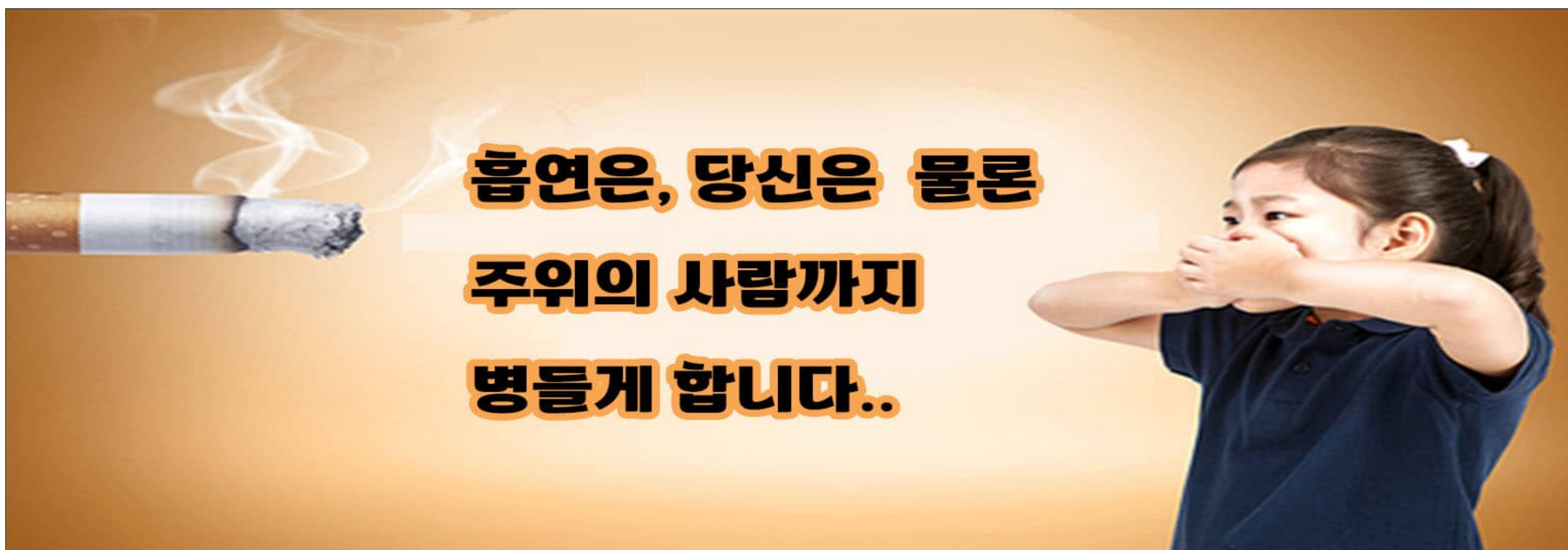
정읍시새마을회는 23일 정읍사공원에서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행사에는 새마을회 임원과 부녀회, 지도자협의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학수 시장의 부인인 정종순 여사도 직접 함께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며 현장을 훈훈하게 했다.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고춧가루와 된장 등을 사용해 고추장을 담그고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완성된 고추장은 23개 읍·면·동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8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금순 부녀회장은 “정성으로 마련한 고추장이 지역사회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마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一事一言〉



경찰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제대로 운영하자(1)

고상만
인권운동가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가운데 공권력의 또 다른 축인 경찰 개혁 논의는 왜 미진한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거악인 검찰의 문제가 시급하니 우선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찰 역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문제 의식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경찰 개혁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지난 8월 26일,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만든 ‘경찰국’을 시행 3년 만에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그간 자문기구 수준에 불과했던 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경찰청장 등을 탄핵하는 소추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려되는 경찰권 비대화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경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26일, 검찰은 의정부 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정 아무개 경위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원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범인 도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정 경위의 공소장에 드러난 범죄 혐의는 매우 충격적이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김 아무개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이후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120만 원을 받았다고 한

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 중 정 경위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중 몇 가지만 열거하면 이렇다. ‘(아) 무튼 오늘 돈 줘. (사건)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일 출근해서 당신 건은 불기소로 정리해 볼게’ ‘하나씩 약속할게. 당신이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

수사팀장 정 경위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었다. 그는 피의자에게 ‘내년부터 (경찰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피의자) 당신의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를 거야라고 보냈다고 한다. 그후 정 경위는 자신과 유착한 피의자 김 아무개에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해의 도피를 권유하며 자금까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구속되자 그는 반년간이나 사건을 방지한 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 경위는 과연 없을까?

과연 정 경위와 같은 행위는 지금의 경찰 시스템에서 이례적인 것일까? 검찰은 정 경위의 단독 범행인지 의심하며 수수한 뇌물의 상납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정 경위가 보낸 메시지 내용 중에 특히 충격적인 대목은 ‘수사종결권’ 언급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정 경위는 그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뇌물수수 범죄 도구로 썼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장에

서 들려오고 있다. 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오전엔 화가 났고, 지금은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하다. 수사종결권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을 살피고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며칠 후 배 변호사는 제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렸다.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의 태도는 아직 훌륭하지 못하다. 다 그런 건 아닐 테지만-아니어야겠지만-몇몇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무시할 순 없다. 일부 경찰은 변호인이나 고소 대리인과 의견이 다르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대화를 한 것인 지, 조를 당한 것인지, 싸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수사는 제 마음이었어요’ ‘수사권은 저에게 있어요’ 등등. ‘당연히 수사관님 권한이심니다만 이런 걸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배수진 변호사만이 아니다. 최근에 만난 공익제보자 이상돈 씨 역시 ‘잘못된’ 경찰 수사에 대한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배치된 30대 초반의 ‘전문연구요원’과 기업주 등을 내부 고발했다. 의무복무 대신 기업에서 3년간 연구 업무를 하는 직위였다. 하지만 그들은 제도를 악용했다. 실제 근무는

고사하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전문연구요원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주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병무청에 신고하는 한편 경찰서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보내온 경찰의 수사 결과는 ‘각하’ 처분. 피고발인이 근무 안 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각하 처분의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다. 경찰은 고발인 이 씨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공익제보자인 이 씨가 분노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고발인은 관련 증거가 있는 병무청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것을 고발인 조사 당시 경찰에게 진술했다고 한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 되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자치도는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민생지원’, ‘안전대응’, ‘편의제공’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개 과제를 마련해 도민과 귀성객이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더불어 살피고, 함께 나누는 활기 넘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고통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5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20%까지 높였다. 농어민 공익수당 역시 1인 가구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한 ‘상생페이백’ 제도를 통해 지난해보다 소비가 늘어난 도민에게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해 주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이는 치솟는 생활물가와 성수품 가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명절은 나눔과 돌봄의 시간이다. 이번 대책에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를 살피으로써 명절의 온기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누적된 부채와 고금리 부담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병행,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교통·의료 등 생활 편의 대책도 눈에 띈다. 도는 연휴 기간 귀성객과 도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충하고,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화재,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대책이 아무리 세밀하게 짜여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나 상생페이백과 같은 정책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 취약계층 지원 역시 보여주거시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들이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도가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풍요와 나눔의 추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결국 도민들의 삶 속에서 확인된다. 현장 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뒷받침될 때만이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체감할 수 있다.

전북도는 형식적 대책 마련에 머물지 말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모두가 함께 웃는 명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는 결국 함께 살피고 나누는 데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금당사목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1번지

▲오늘의시

그 말이 있을 물들였다 / 나희덕

살았을 때의 어떤 말보다
아름다웠던 한마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있을 노랗게 물들였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있을 스쳤을 뿐인데
때로는 여름에도 낙엽이 진다.

온통 물든 것들은 어디로 가나.
사라짐으로 하여
남겨진 말들은 아름다울 수 있었다.
말이 아니어도, 찾아지는 숨소리,
일그러진 표정과 차마 감지 못한 두 눈가
지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그 순간
삶을 깨매는 마지막 한 땀처럼
낙엽이 진다.
낙엽이 내 젖은 신발 창에 따라와
문턱을 넘는다, 아직은 여름인데.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

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있을 물들였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문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 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장수지국 010-8826-8049
완주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전지시- 010-5242-3694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282-9600

신문구독283-8800

JBT

익산시, 청년농업인 성장·정착 전방위 지원



영농창업·생활안정·교육·교류 맞춤형 지원 추진 융자사업·농업용 드론·현장 멘토링·자율 소모임 지원 등

익산시가 전방위 지원을 펼쳐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의 든든한 지원 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생활·교육·교류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성장 발판 마련

시는 청년농업인의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연 1.5%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농창업 지원사업으로 △농업기계 자율주행 기술도입 △농업용 드론 △시설하우스 설치 △선진영농 기술 도입 등을 진행해 스마트 기술을 농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생활 안정 분야에서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기반 임차지원 △농자재 지원 △농가주택 리모델링 △행복주택 입주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후계농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 지원 사업 예산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차 지원 사업은 2020년 이후 선발된 청년후계농이 영농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금융 이자의 0.5%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초기 창업 단계에서 청년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돕는 교육 및 현장 지원

시는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대학에 '청년팍기교청반'을 개설해 재배 전 과정부터 후작물 재배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세금과 농업정책자금 활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

형 교육을 통해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선배농업인의 생생한 영농 경험을 전수하는 '스마트팜 현장 멘토링'과 현장 밀착형 영농 지도 등도 청년농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현장 영농 지도를 통해 지난해 선정된 청년후계농 66명의 농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대학교와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재학생 대상 스마트농업 현장 교육을 추진해 미래 농업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정착 결속력 높여

청년농업인 간 영농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교류 활동

지원도 활발하다.

특히 자율 소모임 지원사업인 '생생동아리'를 통해 공동 학습, 기술 교류, 친목 활동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년농업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류 활동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 소통과 협력 기회를 넓히고, 전문가·선배 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작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애로사항 지원과 후속 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청년후계농 31명에게는 상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상환 유예·연장 제도를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익산=최준호 기자



풍요로운 추석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물로 가꾼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포털 사이트에서 '장수물'을 검색하세요!

NAVER
장수물 MALL
JANGSU MALL